# 부마항쟁의 발원지- 부산대 구 도서관

김 종 세

부산 동래의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1950년대에는 정치학의 이종률, 경제학의 최종식, 문학의 김정한 선생이 강의를 하던 대학이다.

구 정문을 들어가 '무지개문' 을 지나면 부산대의 상징인 '독수리탑' 뒤로 2층의 흰색 건물이 보인다. 1999년부터 부산대도서관 자율도서관으로 간판이 바뀌었지만, 부마항쟁이 있었던 1979년에는 이곳이 (유일한) 부산대도서관이었다. 그때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곳을 '구 도서관' 이라 부른다.

**부마민주항쟁 – 총 구속자 1,563명**

옳은 스승들은 대학에서 모두 쫓겨나거나 학내에서 드러내 놓고 큰기침을 하지 못하던 1970년대. 강의실에는 무기력한 분위기가 팽배하고, 그 어디에서도 민족의 장래에 희망을 걸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다. 대학생으로서, 선택된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세우지 못한 학생들은 술로 미팅으로 포커로 젊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대다수 학생들은 부산대의 상징인 무지개문 중심에 붙어 있는 종과 독수리탑 꼭대기에 있는 독수리상을 가리키며 '울리지 않는 자유의 종' 과 '날지 않는 독수리' 를 부산대의 2대 불가사의라고 하며 '유신대학' 인 부산대의 학생임을 스스로 조소하였다.

1979년 기미년. 1919년 3 · 1기미민족운동이 일어났던 해의 회갑년이 되는 해이다. 마치 몇 개월 후의 궐기를 예언하듯 그 해 《부대신문》은 1면 머리에 떠오르는 동해의 해 사진에 '그날의 얼을 안고 솟는 기미의 해' 라고 설명을 달아 신년호를 발행했다. 연초부터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가톨릭농민회 오원춘 사건, YH무역 노동자 농성 · 사망 사건, 신민당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 등을 일으킨 유신독재는 그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또한 이 한 해 동안 전세계적으로 팔레비, 소모사, 아민 등 10명의 독재자가 권좌에서 쫓겨나거나 비운을 맞이하기도 했다.

검거된 구속자가 총 1,563명으로 최고 권력에 내부 갈등을 일으켜 박정희 일인 독재를 종식시켰던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던 1979년, 그 해에 나는 문

리대 수학과 3학년에 다니며 학내 공개써클인 아카데미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민주선언문〉, 〈민주투쟁선언문〉**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교 교정은 중간고사를 꼭 1주일 남겨 놓은 월요일을 맞고 있었다. 쾌청한 가을 날씨에 900여 석의 도서관 1, 2층은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로 붐볐고, 운동장(지금의 '넉넉한 터') 스탠드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군단 정기 사열을 참관하고 있었다. 10시쯤 되자 교정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 우리는 학원 내의 일체의 외부세력을 배격한다. 비민주적 학칙의 민주적 학칙으로의 개정과 학원언론의 자율화와 학생회의 민주화와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어용 교수 학자를 반대하며 학원당국의 민주행정 방향으로서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요망한다. 우리는 언론 · 인권 · 자유의 유보나 제약에 반대한다. … 우리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당위적인 목표로 한 경제개발계획의 자립경제에 대한 무방향 역방향성을 고발한다. … 우리는 총체적인 책임과 결과로서 현 독재집권층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 10시 도서관 앞 (〈민주선언문〉 중에서)

이진걸(공대 기계설계 3)과 남성철(방위병)은 유인물이 든 가방을 각각 나눠 들고 도서관과 본관, 문창회관, 대운동장 스탠드 등지를 돌며 〈민주선언문〉을 뿌렸다. 처음에는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누구 하나 만류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 한민족 반만 년 역사 위에 이토록 민중을 무자비하고 처절하게 탄압하고 수탈한 반역사적 지배 집단이 있었단 말인가? … 모든 경제적 모순과 실정을

근로자의 불순으로 뒤집어 씌우고 협박 · 공포 · 폭력으로 짓눌러 왔음을 YH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고, 저들의 입으로나마 나불대던 민주공화국의 형식 논리마저도 이제는 부정함을 야당의 파괴 음모에서 깨닫게 하여 주었다. … 1979년 10월 15일 오전 10시 도서관 앞 (〈민주투쟁선언문〉 중에서)

〈민주투쟁선언문〉을 준비한 법정대 신재식(사회복지 2/복학생)과 그의 동료들도 본관 강의실과 미리내골 주변 벤치를 돌아다니며 유인물을 돌렸다.

이 때 나는 아카데미회 후배들과 도서관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앉아 시위 주동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낯익은 '도깨비집' 학우들도 눈에 띄었다. 이진걸이 도서관 1, 2층을 돌며 〈민주선언문〉을 뿌리고 나간 얼마 후, 우리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을 선동하며 도서관 앞으로 나가서 뒤를 보니 100여 명의 학생들이 따라 나오고 있었다. 점점 더 나올 분위기였다. 본관 쪽에서도 200명 가량이 올라오고 있었다.

**각각 진행되던 시위 준비는 10월 15일로 통일**

1979년 9월 어느 날 2학기가 시작될 무렵, 구 도서관 뒤 낮은 동산인 문창대文昌臺(부산대는 '효원(새벽벌)', '문창대'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에서 학내 운동권인 비공개써클 '도깨비집', 공개써클 '아카데미회' 등의 3, 4학년 7~8명이 모여 2학기 학내외 정세를 전망하는 모임을 가졌다. 키 큰 나무와 바위로 둘러싸인 지형이라 정보기관의 감시와 도청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 모임에서 이번 2학기 때 시위를 결행할 그룹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 그룹이 10월 15일에 시위를 기도한 이진걸(공대 3학년) 그룹이었다는 것은 뒤에 알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아직 부산대의 분위기나 학생운동 역량이 학생 대중을 시위로 이끌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더구나 가두에서 시민들이 항쟁을 전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참석자 그 누구도 예상한 이가 없

었다.

운동 이론과 분석의 모자람 탓도 컸겠지만, 한 번도 대중 투쟁을 조직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의 필연적 한계였다. 머리와 가슴, 이론과 열정만으로 하는 운동으로는 대중을 투쟁의 대열에 서게 할 수 없다. 대중 투쟁의 풍부한 경험과 부단한 실천, 자기 몸을 온전히 역사에 바치는 헌신적 자기 결단과 지혜로움이야말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2학기 들어 이진걸과 신재식 그룹 두 갈래로 각각 진행되던 시위 준비는 15일로 통일되었다. 당시 아카데미회를 이끌던 나(10기)는 10월 10일쯤 써클 선배(8기)인 신재식이 15일 시위 계획을 알려오며 인원 동원을 부탁해 와 적극 호응하기로 하던 중, '도깨비집' 의 이호철(행정 3)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서 이진걸, 이호철, 나 세 사람이 회동하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시위 기도 그룹들과 공개 · 비공개 써클들은 물밑에서 시위를 추진하며, '15일 계획' 을 은폐시키기 위해 '17일 시위설' 을 유포하고, 학생들을 자극하기 위해 "이화여대생들이 남자 성기 그림과 가위를 보내 왔다" 라든가 "시위에 대비해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라" 는 등의 유언비어를 만들어 유포하는 등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 무산된 시위를 딛고 제2시위가 준비되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준비해 왔던 이날의 반유신 데모는 결행되지 못하였다. 주동자 이진걸은 뒤에 "당시 10시께 유인물을 뿌리면서 집결 시간을 10시로 잡은 게 실패의 주 원인이었다" 고 진단했다.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을 이끌고 도서관 앞에 나왔을 때가 10시 40분쯤이었다. 대학생활 동안 한 번도 시위를 해 본 경험이 없던 학생들은 시위 주동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뿐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다. 팽팽한 긴장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결국 기대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자 모였던 학생들이 서서히 해산하기 시작했다. '역시 유신대학은 어쩔 수 없는가…' 가슴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엉킨 채 학생들

부마항쟁 발원지
표지석

은 흩어졌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 준 이날의 시위 무산은 다음날 '자신들에 대한 분노' 까지 더하여 폭발적인 열기로 시위가 전개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15일의 시위가 무산되고 그 파고가 조용하던 교정에 퍼져 나간 그날 오후, 한편에서는 내일의 제2 시위를 위한 준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하오 2시쯤에 본관 뒤에서 정광민(경제 2)을 만나 내일(16일)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인원동원 요청을 받았다. 그는 오늘 시위 무산을 보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 하였다. 그래서 정광민 그룹이 본관 뒤 상대 쪽에서 인원을 모아 오면 도서관 앞에 최대한 인원을 모아 놓고 합류시키겠다는 기본적인 계획도 세우게 되었다.

나는 이른 저녁 무렵 이호철을 찾아 나섰다. 시위 무산의 허탈함을 학교 밑 주점에서 달래고 있던 '도깨비집' 학우들 속에서 이호철을 불러내 내일 시위

계획을 알리고, 내일 인원동원 확인점검을 구공대 2호관 옥외 화장실에서 상오 9시에 하기로 하였다.

그날 밤 다음날을 대비하러 써클 후배 10여 명을 데리고 후배 김영욱(12기)의 집에 가서 합숙을 하게 된 나는 다행히도 다음날(10월 16일) 새벽 나를 15일 데모 주동자로 지목하여 나의 집과 백형 집에 들이닥친 동래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의 검거를 피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등교하며 학교 앞에서 오늘 시위의 계획을 후배들에게 알리고, 도서관 안 요소요소에 흩어져 있다가 학우들을 선동하며 참여하도록 당부했다.

> 청년학도여, 지금 너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심술궂은 독재자에 의해 고문받고 있는데도 과연 좌시할 수 있겠는가. … 1. 유신헌법 철폐 2. 안정성장정책과 공평한 소득 분배 3. 학원사찰 중지 4. 학도호국단 폐지 5. 언론 · 집회 · 결사의 완전한 자유와 보장 6. YH 사건에서와 같은 반윤리적 기업주 엄단 7. 전국민에 대한 정치적 보복 중지 … 모든 효원인이여, 드디어 오늘이 왔네! 1979년 10월 16일 10시 도서관으로! (〈선언문〉 중에서)

그랬다. 이곳 구 도서관 앞에서 드디어 10월 16일 화요일에—1960년 4 · 19 또한 화요일이었는데—부산대 학생들의 역동적인 역사 참여는 발원되었다.

### "독재타도", "유신철폐", "언론자유"

16일 정광민은 상대 쪽에서 대열을 이끌고 미라보 다리를 건너 도서관 쪽으로 나아갔다.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대가 도서관 앞에 이르렀을 때는 인원이 200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거기에는 이미 또 다른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개 · 비공개 써클들

이 동원한 회원들과 이에 고무된 학생들이었다.

두 팀은 도서관 앞에서 자연스럽게 합류하였다. 시위대의 규모가 눈 깜빡할 사이에 400~5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아침이슬〉, 〈선구자〉, 〈애국가〉, 〈교가〉, 〈기다리는 마음〉 등 절절한 가락이 학생들의 가슴과 가슴을 훑으며 이어졌다. 특히 "외치노니 / 학문의 자유 / 이곳이 우리들의 부산대학교 / 부산대학교"라는 가사의 교가를 합창했을 때, 학생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무지개문 밑을 지나 구 정문으로 내려간 1,000여 명의 학생들은 구舊 정문 옆 블록 담장을 무너뜨렸다. '자유의 종'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또 4,000여 명의 시위대는 독수리탑을 돌아 신新 정문으로 내리뛰기 시작했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나올 때는 삽시간에 7,000여 명이 물결을 이루며 넘실댔다. '독수리'도 날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 문을 박차고 나간 시위대는 시내로 향했다. 시내행 18번, 19번 등의 노선 버스는 발디딜 틈도 없이 꽉꽉 들어찼다. 차비를 받으려 하지 않는 안내양, 어깨를 치거나 손을 잡아 주는 승객, 격려의 말을 건네는 운전기사 … 한 대 한 대의 버스가 모두 시위 버스였다. 버스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차가 뒤쫓아 오면 운전기사는 더 빨리 차를 몰았다. 민심이 완전히 이반한 것이다.

### 반민주 세력은 약화 분열, 민주 역량은 점차 강화

이리하여 "독재타도", "유신철폐", "언론자유"를 부르짖으며 감행된 부산대학교의 교내 시위는 학생 시위대가 시내 중심가로 진출하여 시민들 속으로 그 역동적인 민주항쟁의 기운을 퍼뜨렸다. 이날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결합한 시위대는 남포동과 광복동을 중심으로 한 중구 도심에서 잇달아 시위를 벌였는데, 마침내 일반 민중들과 결합 · 증폭되고 인접한 서구와 동구 지역, 나아가 마산까지 확산됨으로써 거대한 부마민주항쟁의 물결을 이루게 되었다.

"민주주의 신새벽 여기서 시작하다."

25년 전 부마항쟁의 함성을 올렸던 부산대 구 도서관 앞에는 지금 부마민주항쟁 발원지 표지석이 서 있어 그날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부마항쟁이 일어난 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 항쟁에서 제기한 과제의 완수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5 · 18민중항쟁, 6월항쟁을 치르고 6 · 15공동선언, 촛불시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반민주 세력은 약화, 분열되고 있고 우리 민주 역량은 점차 강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마항쟁의 역사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부마항쟁은 그 역동성을 잃지 않고 투쟁 형식과 양태를 달리하여 거듭 거듭 계속될 것이다. ■

**김종세** jong@demopark.or.kr | 부산민주공원 전시기획실장.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및 감사, 부산지역 6월항쟁 자료발간사업 기획과 발간위원회 재정분과 간사를 역임했으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구속된 적이 있다.